

정읍시, 첨단과학기술로 '희망비전' 이끈다

유진섭 시장, 첨단과학산단 입주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 R&D기반 핵심연구시설 확충·청년 일자리 만들기 '박차'

정읍시가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망 정읍'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유진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 기업 대표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현대에너지, (주)쓰리에이씨, 이원컴포텍(주) 등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10여개의 기업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의 애로 사항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건의하고 업체 발전과 첨단과학산업단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19년 9월 준공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과 3대 국책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설립 등 첨단과학산업단지의 혜택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첨단산업의 중심인 신정동 국책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와 연계해 조성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로 특히 농·생명 융복합 거점지구이다.

민선7기 들어 분양률도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 11월 현재 업무협약 기준 분양률 90%(총 37개소)를 넘어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입주 증가속에 산단 주변 여건도 확 달라지고 있다. 국책 연구소 R&D기반 핵심연구시설 확충(총 24개 가동 중)뿐만 아니라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도 건립 중이다. 600세대 규모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이며 국민임대 주택 378세대 건립도 조만간 착공을 준비 중이다.

그간 시설 구축에 주력해온 시는 앞으로는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과 연계하고, 지역인재를 전문가그룹으로 진입시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에코축산과 바이오 미생물 소재, RFT융합 소재 등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연구소기업 10개소 등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로 농·생명 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정읍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전경. (정읍시 제공)

총 100개 선도 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5000여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2023년까지 R&D투자율을 지역 예산 대비 1%(연 50억원)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발전이 곧 정읍시의 발전"이라

고 말하는 유진섭 정읍시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정읍시의 모든 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품목 8개로

내년부터 노지감자·대파 추가

전북도는 내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적용하는 품목을 8개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린다.

적용 품목은 올해의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에 노지감자와 대파가 추가된다.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고 가격 변동 폭이 큰 것들이다.

기존에는 시군별로 이 가운데 2개 품목만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8개 품목 모두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도 기존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5~20% 늘려주기로 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소농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작년보다 55% 증가한 1700여 농가가 올해 참여했을 정도로 호응이 크다"며 "앞으로도 대상 품목과 지원금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만족도 높아

90.5% "교육지원 경험"

순창군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이 지역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의 교육지원 경험은 응답자의 90.5%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답했으며, 교육지원 및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교육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96%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외국인 아내의 51% 정도가 한국인으로 귀화했고, 출신국적을 보면 베트남, 중국, 일본의 순으로 구성됐다.

순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의 거

주기간은 63.2%가 9년 이상의 장기거주의 형태를 보였고 동거가족은 대부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였다.

다문화가족들이 앞으로 지원 받고 싶은 사업은 자녀교육 지원이 20.6%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교육, 모국방문기회 확대,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순으로 응답했다.

순창군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213세대 다문화가족이 조사에 응했다.

황승주 순창군수는 "이번 조사로 인해 앞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 출신 국적이 나 거주 기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군산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내년 1만가구 이상으로 늘듯

군산시의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올해 7300가구에서 내년엔 1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자가·임차 가구(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 가구는 소득인정액·가구원수·임차비용·보증금 등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해 경보수(378만원), 중보수(702만원), 대보수(1026만원)로 나눠 지원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제외됐던 가구들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지난 29일 남부시장에서 열린 '청년 역사 쑈' 공동개업식에서 사업주들이 개업을 일리는 떡을 자르고 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 청년층 창업지원 가속도 '청년역사쑈' 공동개업 일자리 창출 도모

익산시가 청년층의 창업 지원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9일 청년창업지원사업 일환으로 '청년 역사 쑈' 공동개업식을 남부시장에서 진행했다.

익산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청년들이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청년 역사 쑈는 금속공예 공방&카페 '오늘도 공휴일', 드라이플라워&디퓨저카페 '프로퍼센트', 식용곤충을 이용한 건강간식 '베이커리 한별', 캐릭터 디자인공작소 '티끌' 등 4개팀이다.

이들은 6개월간 사업계획서 컨설팅, 온라인 서비스 개발, 동종사업 전문가의 멘토링 등을 거쳤다.

또 남부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모임 등을 거쳐 창업하게 됐다.

시는 청년창업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3년간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의 확대를 위해 청년창업팀을 추가 선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창군, '농업인대학 운영'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고창군 농촌개발대학이 '2018년 농업인대학 운영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우수기관 선정 경진대회'에 참가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농촌개발대학은 지난 2005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총 61개 과정에 2031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고창 농업발전을 이끄는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 수박멜론과, 딸기과, 치유채 함판과, 화훼과, 농산물가공과, 체리과, 땅콩과 등 7개 과정을 개설하고 300여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앞선 교육을 펼쳤다.

그동안 고창군은 농촌개발대학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농촌개발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고창농업교육협력단을 두어 학교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부분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사운영을 해왔다.

또 학생자치회 육성과 학생체육대회 개최로 학습뿐만 단합과 화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친밀감을 높이는 등 학생간 소통과 공유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창농촌개발대학은 앞으로도 농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 농생명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창농업 발전의 시금석이 되는 농업인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